

보도자료



| | |
|------|---|
| 보도분류 | 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 |
| 보도일시 | 2024. 5. 29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작성과 | 서비스산업유치과 |
| 담당 | 과장 김성수, PM 정혜련 (032-453-7343) |

인천시, 송도에 ‘세계한인무역단지’ 조성 청사진

- 유정복 시장, 美 뉴저지서 ‘세계한인무역단지&글로벌한인문화타운’ 계획 발표 -
- 세계한인무역단지, 세계한인무역협회, 코트라, 인천상공회의소 등 총집합...한인 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대 -
- 연 500만 명 찾는 뉴욕명소 ‘하이라인 파크’ 창업자 만나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도 -

- 인천시가 한국으로 돌아올 재외동포들의 거주 공간인 ‘글로벌한인문화타운’에 이어 한인 기업인들을 위한 ‘세계한인무역단지’ 조성 청사진을 공개했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현지시간 5월 28일 뉴저지에서 재외동포 교민들과 기업인들을 만나 ‘세계한인무역단지 & 글로벌한인문화타운’ 조성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 2월 유정복 시장이 독일에서 공개한 ‘글로벌한인타운’ 조성 계획을 확대해, 한인 기업인들의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무역을 위한 ‘세계한인무역단지’ 계획이 공개됐다.
- ‘세계한인무역단지’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단체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 무역지원기관, 재외동포청 등 세계한인 관련 정부기관, 외국인 투자기업,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비즈니스 기관 등이 총집합하고, 글로벌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, 글로벌 한인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해 인천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.
- 여기에 전시 및 아카데미 등 마이스 시설과 글로벌 창업센터(스타트업파

크2) 등 관련 시설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손들을 양성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.

- 대상 부지는 송도 6,8공구 아이코어시티 내 국제업무용지 약 9,500평이 검토되고 있다.
- 이번 행사에는 월드옥타(세계한인무역협회) 뉴욕지회 및 뉴저지지회,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등 기업인들이 참석해 ‘세계한인무역단지’ 및 글로벌 한인문화타운 조성사업 투자 및 입주에 대한 큰 호응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.
- 유정복 시장은 “지난해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에 힘입어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”면서 “재외동포 분들을 위한 정주환경 뿐 아니라 인천이 가진 글로벌 도시로서의 여건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국내에 진출하고 연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- 한편, 이날 재외동포들과의 만남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뉴욕의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하이라인 파크(Highline Park)의 로버트 해몬드(Robert Hammond) 창업자를 만나 도시 재생 선진 사례 노하우를 듣고 인천시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.
- 로버트 해몬드는 버려진 철도를 없애고 빌딩을 지으려는 개발업자들의 계획에 대항해, ‘프렌즈 오브 하이 라인(Friends of High Line(FHL))’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창립, 버려진 철도를 공중 공원으로 탈바꿈 시켰다. 이곳은 한 해 약 5백만 명이 찾는 뉴욕의 명소로 재탄생했다.
- 유정복 시장은 로버트 해몬드와 하이라인 파크, 맨해튼에 조성된 도심개발사업지인 허드슨 야드 등 현장을 둘러보며,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접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벤치마킹했다.

- 유정복 시장은 “인천은 대한민국 개항의 도시이자 미래를 향하고 있는 도시”라며, “이번 하이라인 파크처럼 해외 기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사람과 문화, 산업이 공존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28일 미국 저지시티(Jersey City)에서 열린 '세계한인무역단지&글로벌 한인타운 비전 발표식'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.



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(현지시간)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(High Line Park)에서 해몬드(Robert Hammond) 하이라인파크 창업자에게 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찰하고 있다.

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(현지시간)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(High Line Park) 회의실에서 로버트 해몬드(Robert Hammond) 하이라인파크 창업자에게 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.

※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<https://tv.incheon.go.kr>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